■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41-073.
http://doi.org/10.17948/kcs.2023..99.041

【 특집 : 한국 근대의 지식 문화 탐색과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 】

조선어학연구회 기관지 『정음』(1934-1941)을 통해 본 조선어 연구의 지형*

최경봉(崔炅鳳)**

목 차

1. 머리말
2. 1930년대 조선어학계의 문제의식과 『정음』
3. 『정음』에 나타난 언어 연구의 관점과 지향
4.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조선어학연구회 기관지 『정음』(1934-1941)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서, 당시 조선어학계가 조선어 연구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고 어떠한 연구방법론을 모색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성취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정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국어학사의 공백을 메우고, 『정음』 발간기(1934-1941)에 이루어진 조선어 연구의 지형을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2장에서는 '실천적 언어 연구'에서 '과학적 언어 연구'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정음』의 논문 게재 경향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주류적 연구 경향이 역사비교 언어학으로 바뀌는 변화가 필진의 교체와 연동되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로 철자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였던 『한글』과 『정음』 간 진영 경계가 희미해졌음을 밝혔다.

3장에서는 『정음』의 논문을 '철자법 관련 논의', '언어 이론 관련 논의', '언어정책 관련 논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드러난 언어 연구의 관점과 지향을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정음』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역사적 접근을 통해 언어 문제 및 언어 현상을 해결하고 설명하는 것임을 밝혔다.

주제어: 구조주의 언어학, 국어학사, 마르크스주의 언어학, 역사비교언어학, 『정음』, 조선어학연구회, 조선어학회, 『한글』.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조선어학연구회 기관지 『정음』(1934-1941)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서, 당시 조선어학계가 조선어 연구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고 어떠한 연구방법론을 모색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성취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정음』을 대상으로 한 국어학사적 논의는 장세경의 논의[1]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글』과 『정음』을 계량적 측면에서 비교하며 1930년대 조선어 연구의 윤곽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정음』에 실린 306편의 글 중 어학 관련 글이 250편이고, 어학 관련 글 중 논문 성격의 글은 122편(맞춤법 논의 41편, 맞춤법 이외 음운, 형태, 문법 등에 관한 논의 59편, 외국 언어학 논문의 번역 및 소개 22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대한 비판 글이 128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게재 글의 성격에 따른 분포 조사에 머물러[2], 학술지로서 『정음』의 국어학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조선어학연구회의 기관지 『정음』은 서구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라는 허재영의 평가[3]는 『정음』의 국어학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서구학문의 도입 양상에 대한 설명은 유응호의 논문을 거론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1930년대 조선어학계의 동향을 보여주는 고영근[4]과

1) 장세경, 「1930년대의 국어 연구—〈한글〉과 〈정음〉의 대비 연구—」, 『한국학논집』 21·22,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2, 7-33면.
2) 이 논의에서는 게재된 글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에 대한 근거 없이 글의 성격에 따른 논문의 편수만 제시되어 있다.
3) 허재영, 「일제강점기 우리말 연구의 경향과 의미—잡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8, 305면.
4) 고영근, 『한국의 언어연구』, 역락, 2001, 247-265면.

최경봉[5]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연구방법론으로 역사·비교 언어학을 수용하는 데에서『정음』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유응호의 논문만을 거론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어학연구회의 기관지로서『정음』을 다룬 논의에서도, 1930년대의 조선어 연구 경향을 살피는 연구에서도『정음』의 전모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적 한계 속에서,『정음』은 '한글맞춤법'과의 경쟁에서 패퇴한 박승빈의 철자법을 옹호하고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한 조선어학연구회의 기관지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는 국어학사 논의가『정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였다. 따라서 근대 국어학사가 균형 있게 서술되기 위해서는『정음』에 실린 논문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대한 비난이나 조선어학연구회 철자법에 대한 옹호의 글을 제외한 상태에서, 언어 연구 논문을 성격에 따라 분류한 후 이들 논문의 연구사적 의의를 검토하면서, 학술지로서『정음』의 지향과 위상을 규명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930년대 조선어학계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서, 조선어 연구의 전개와 전환 과정에서『정음』의 역할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정음』의 논문을 '철자법 관련 논의[6]', '언어 이론 관련 논의', '언어정책 관련 논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정음』의 논문을 분류하고 각 부류별로 언어 연구의 관점과 지향을 규명할 것이다.

2. 1930년대 조선어학계의 문제의식과『정음』

최경봉은 1930년대 조선어학계가 '실천적 언어 연구'와 '과학적 언어 연구'를 병립시키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갔음을 지적한 바 있다.[7] 이때 '실천적 언어 연구'와 '과학적 언어 연구'는 시대적 과제와 연동되어 전경화(前景化)

5) 최경봉,「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의 지향」,『한국어학』40, 한국어학회, 2008, 127-148면.
6) '철자법 관련 논의'에서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철자법을 다룬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7) 최경봉, 앞의 글.

되거나 후경화(後景化)되는데, 그간의 국어학사 논의에서는 1936년『조선어 표준말 모음』출간 이후 조선어 규범화가 대체로 완성의 단계에 접어들 때를 과학적 언어 연구가 전경화되는 시기로 봤다.

이런 점을 보면 '과학적 언어 연구'로의 전환은 철자법과 표준어 등 규범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연구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과학과 한글운동의 갈등'[8]에서 볼 수 있듯이, '실천적 언어 연구'가 주류이던 조선어학계에서 '과학적 언어 연구'는 논쟁적 표현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 이는 대체로 보편 원리로서 일반 언어학을 학습하고 그 이론에 기반하여 언어를 연구하는 것을 뜻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희승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어느 特殊한 事實의 究明은 모든 事實 全體에 貫通되는 一般的 普遍的 原理 밑에서 遂行되지 않으면 危殆한 方法으로 그릇된 結論에 到達하기 쉽게 될 것이다. 卽 朝鮮 語學의 硏究는 一般語學의 原理와 法則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질없이 朝鮮語 自體만 穿鑿한다면 結局 井蛙小天의 妄斷에 빠지는 일이 많을 것이다.(이희승,「조선 어학의 방법론 서설」,『한글』71, 1939, 153면.)

이희승은 위의 내용에 이어 일반 언어학의 방법론을 음성(音聲), 어의(語義), 어태(語態), 어법(語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말하는 '일반 어학의 원리와 법칙'은 무엇인가? 이 논문의 설명과 당대의 연구 경향을 고려하면 역사·비교 언어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을 가리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36년 역사·비교 언어학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유응호의 논문이『정음』을 통해서 발표되었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로의 전환 국면에서『정음』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경제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유응호는 14호(1936.6.)에「言語의 形態」를,

8) 김병문,『〈한글 마춤법 통일안〉 성립사를 통해 본 근대의 언어사상사』, 뿌리와 이파리, 2022, 207-239면. 여기에서는 안확(안자산)과 조선어학회 조선어학자들 간의 논쟁 양상을 서술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밝혔다.

15호(1936.8)에 「言語發達의 本質에 關한 槪觀」을, 17호(1936.12)에 「音韻法則에 關하야」를 게재하면서, 파울(H. Paul)의 역사언어학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에 근거하여 조선어 분석을 시도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선어학연구회가 1936년까지도 철자법 논쟁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만큼, 규범화 연구에서 과학적 언어 연구로의 전환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정음』에 게재된 논문의 경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3호(1938.3)부터이다. 두드러진 것은 고재섭의 「世界言語學的系統과 朝鮮語의 地位」처럼 역사·비교 언어학적 문제의식을 보이는 논문과 고재휴의 「諺文의 起源說과 蒙古語學運動의 槪況」처럼 훈민정음 창제에 몽고어학의 영향 가능성을 검토하며 조선어와 몽고어의 역사·비교적 연구의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논문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고재섭은 언어의 유형과 계통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朝鮮語의 特性과 由來變遷을 正確히 考察하랴면 먼저 言語學的 系統으로 봐서 朝鮮語의 地位를 明確히 認定하야야 할 것이다."(4면)는 제안을 하면서 과학적 연구로의 전환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1936년 유응호가 역사·비교 언어학 방법론을 소개한 이후 언어의 연구에서도 훈민정음의 연구에서도 역사·비교 언어학적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은 전환의 분명한 징표라 할 수 있다.

23호에 이어 24호에서도 이인식의 「聲音의 一般的性質과 그 分類」(24-25호)처럼 언어학의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수준의 논문이 나오는 한편, 안자산의 「諺文과 文化 及 民族性」(24-25호)이나 고재휴의 「文字의 一般的發展形態와 「正音」의 文化的意義」(24호)처럼 일반 이론을 바탕으로 조선어의 특성과 훈민정음의 특성을 설명하는 논문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종간 때까지 유지·확장된다. 이때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규범화 연구에서 역사·비교 언어학의 방법론에 근거한 과학적 언어 연구로 그 경향이 바뀌는 것이 『정음』필진의 교체와 연동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한글』과 『정음』에 모두 논문을 발표하면서 활동한 연구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1937년 19호에 『정음』필진으로 첫 등장한 고재휴는 1938년 23호 이후로 역사·비교 언어학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1938년 이후 『정음』을 통해 등장한 연구자인 이익선, 신태현, 이원진 등의 연구는 역사·비교 언어학에서

구조주의 언어학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당시 조선어문학 분야의 저명 인사라 할 수 있는 안자산, 김억, 양주동, 조지훈 등의 논문이 『정음』에 등장하였다. 이들의 글은 대부분 기발표한 글을 재수록한 것인데, 재수록이 『정음』 편집진의 판단과 필자의 참여로 결정된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정음』의 관점과 지향 그리고 이에 대한 조선어문학계의 인정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글』과 『정음』에 모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1940년 『정음』33호에 「朝鮮語의 變遷 古語法에 關한 若干의 考察」을 발표하며 등장한 신태현[9]이다. 그는 1941년 『한글』에도 논문을 발표하는데, 한 연구자가『한글』과 『정음』을 넘나들면서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진영 간 대립으로 치달았던 철자법 연구가 막을 내리고 과학적 언어 연구로 전환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신태현은 『정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박승빈 철자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한글맞춤법의 합리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신태현이 "나도 助詞 助動詞의 原體를 究明하기 前에는 所謂 略音說에 贊同하는 한 便, 더 나아가 「안즈며, 앉고, 안저서」 등과 가튼 綴字를 主張하야와써 쓰나 (「朝鮮」昭和14年 2月號 「朝鮮語綴字問題」 參照) 지금은 完全히 그 誤謬를 깨다라씀으로 나는 어데까지나 語法을 基礎로 한 綴字法을 唱道하는 바이다." (朝鮮語의 變遷 古語法에 關한 若干의 考察, 11면)라면서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의 원칙을 수용하는 언급을 한 것은 철자법에 대한 입장이 더 이상 학술지로서 『정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10]

3. 『정음』에 나타난 언어 연구의 관점과 지향

이 장에서는 『정음』의 논문을 '철자법 관련 논의'(3장 1절), '언어 이론 관련 논의'(3장 2절), '언어정책 관련 논의'(3장 3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드러난 언어 연구의 관점과 지향을 알아볼 것이다.

---

9) 경성제대 사학과를 졸업(1937년)한 역사학자.

10) 33호의 '編輯後記'에 "이번 號에 契丹文字 硏究家로 有名하신 신태현 氏의 貴重한 論文을 실르게 되야서 編輯者 一同이 氏에게 感謝의 뜯을 表하는 바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신태현의 논문은 편집진의 요청으로 게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철자법 논의의 관점과 지향

"국문연구소가 형태주의 표기법을 수용한 것은 관습적 표기보다는 문법적 표기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문법 연구와 표기법 연구를 일치시켜온 결과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경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11] 라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어문정리 과정에서 철자법은 조선어학의 핵심적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한글』과『정음』을 통해 발표된 철자법 관련 논의 역시 대부분이 언어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언어 연구의 관점 및 지향과 관련지어 철자법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언어문자를 논함에 역사적 고찰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연원과 유래를 밝혀 산만한 무정부 상태에서 통제 잇는 법칙적 정리를 하기 위하는 데 그 의의가 잇는 것이다. 그러하야 역사적 사실을 어느 논증의 재료로 인용함도 현대어 현대 기사법을 가장 합리적으로 인도하기 위하는 확립한 목적의식 아래에서 하야야 한다. (…) 그러면 경음 기사에 이서는 그 역사적 유래가 어써하야쓰며 어써한 변천을 겨은 후에 금일에 이르럿나 함을 간단히 드러서 금일의 문제를 처결하는 데에 고찰의 일 근거를 사므랴 한다. (정규창,「경음 기사에 대하야」,『정음』1, 1934, 2면.)

조선어학연구회에서 철자법 관련 논의를 이끌었던 정규창[12]은 위와 같이 철자법의 "법칙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철자법에서 관습보다는 원리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선어학연구회의 지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역사적 고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밑줄 친 내용이다.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 간의 철자법 논쟁에서 핵심 쟁점은 '경음 표기', '받침 표기', '어미활용의 표기' 문제였다. 이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11) 최경봉,「박승빈 문법의 계보와 국어학사적 위상」,『한국어학』89, 한국어학회, 96면.
12) 정규창은『정음』창간부터 12회에 걸쳐 철자법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고, 동아일보 주최 철자법 토론회에서 박승빈, 백남규 등과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모색하는 연구는 '언어보편적인 특성과 조선어의 특성에 대한 탐구', '훈민정음의 제자 및 용자 원칙에 대한 탐구', '훈민정음 창제 이래 서사 관습에 대한 탐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철자법 논쟁이 조선어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장애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어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받침 표기 관련 논의
丁奎昶, 바팀의 本質(3-5호)
權寧仲, 音節文字의 制度(6호)
高在烋, 相異한 바팀과 發音의 混同(21호)
高在烋, 朝鮮語의 音節의 特徵(25호)
高在烋, [ㅎ]음의 특이성(26호)

위의 논문은 받침 표기 문제를 음절의 특징과 관련지어 논의한 것이다. 이중 철자법 논의의 관점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것은 권녕중의 논의이다. 여기에서 권녕중은 "文法整理의 硏究는 旣存한 言語를 法則的으로 說明함에 잇는 것이라 規則을 設定하야노코 그 規則에 符合되도록 言語를 改廢創造함은 不可함 萬一 言語와 文法이 不合하면 文法의 錯誤이라「朝鮮語學講義要旨 三頁」"라는 박승빈의 언급을 "現存한 言語에는 決코 所用 업는 剩餘가 이슬 수 업다."는 파울(H. Paul)의 말과 연결 짓고 있다.[13]

이는 '조선어의 문자는 표음문자이고 그 기사법칙은 음절문자의 법칙을 따르니 조선어 표기법에서는 음절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다'는 주장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세운 문법에 맞추기 위해 조선어의 순리적 법칙을 훼손한 한글맞춤법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철자법 논의에 소장문법학파의 대표적인 언어학자 파울을 소환한 것은 조선어학연구회가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14호(1936.6.)에 파울의 역사주의 언어학 이론을 해설하는 유응호의 논문이 실린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주의 언어학에 대한 관심은 비교언어학에 대한 관심과 밀접하게 연관

13) 권녕중, 「음절문자의 제도」, 『정음』6, 1935, 28면.

되는데, 1938년 이후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이 조선어학계에 폭넓게 공유되면서, 철자법 논쟁 과정에서 축적된 '음절' 논의는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설명으로 확대된다. 25호(1938.7.)에 실린 고재휴의 「朝鮮語의 音節의 特徵」은 영어, 조선어, 일본어의 음절 구성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 언어를 비교하는 설명은 박승빈의『조선어학』(1935)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설명 방식이다. 'ㅎ'의 음성학적・음운론적 특성을 설명한 고재휴의 논문 역시 철자법 논쟁이 잦아드는 국면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철자법 논의를 언어학적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받침 표기와 음절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용언의 어미 활용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미 활용 표기로서 '앉으면'과 '안즈면'의 대립은 결국 받침과 음절의 문제를 부각하기 때문이다.

(4) 어미 활용 관련 논의
丁奎昶, 用言語尾活用의 眞相(7, 10호)
李正旭, 朝鮮語의 音節과 語尾活用에 對하야(17호)

위의 논의에서 음절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은 훈민정음의 "凡字ㅣ必合而成音"이다. 이때 '안즈면'을 합리적인 철자로 보는 이유는 '안'과 'ㅈ'와 '면'이 각각 음절을 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이고, 그런 이유로 '앉'을 어간으로 보면서 하나의 음절 '안'에 'ㅈ'을 포함하는 표기는 음절의 구성 원리에 어긋나는 철자인 것이다. 따라서 어간 '안즈'에 어미 '면'이 결합한 형태를 원단음에 따라 '안즈면'으로 표기하고 어미 '어'가 결합한 형태를 변동단의 음에 따라 '안저'로 표기하는 것은 음절의 구성 원리와 단어의 구성 원리에 부합하는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박승빈 표기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언제나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따른다는 점과 음절과 단어구성의 원리에 부합한 것이라는 점이 거론되었다.

경음 표기를 둘러싼 논쟁도 훈민정음의 표기와 관련하여 전개되었다.『정음』에서 경음 표기와 관련한 논의들은 모두 훈민정음의 문자 표기 원칙을 준용하면서 그간의 관례를 수용하는 철자법이 합리적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5) 경음 표기 관련 논의
丁奎昶, 硬音記寫에 對하야(1호)
權永禧, 諺文記寫法은 訓民正音에로 復古하자(5호)
朴勝彬, 硬音論(8-9호)
丁奎昶, 硬音記寫에 對하야「雙書를 主張하는 諸先生님에게」(15호)
高在烋, 雙書와 中國發音(20호)
李永斗, 硬音과 雙書(22호)
權永禧, 雙書의 錯覺(26호)

위 논의들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쌍서 표기의 성격에 대한 논의이다. 즉, 위 논의들의 목적은 훈민정음에 사용된 쌍서 표기 'ㄲ'이 중국어 유성음의 표기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 조선어학회와 조선어학연구회는 '까'가 맞는지 '싸'가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에 사용된 'ㄲ'이 경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훈민정음 원칙의 준수를 전제로 벌어진 철자법 논쟁은 국어사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철자법 논쟁을 통해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문자로서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를 밝히거나 훈민정음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정음』에서 훈민정음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훈민정음 관련 자료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훈민정음 및 차자표기 관련 논의
文時赫, 吏讀에 對한 考察(1-7호, 9, 10, 12호)
朴勝彬, 訓民正音原書의 考究(4호)
訓民正音原文(4-6호)
龍飛御天歌(7-11호)
尹定夏, 訓民正音後序(22호)
고재휴. 諺文의 起源說과 蒙古語學運動의 槪況(23호)
高在烋, 文字의 一般的發展形態와「正音」의 文化的意義(24호)
安自山, 諺文과 文化 及 民族性(24호)
安自山, 諺文과 文化 及 民族性[附 諺文史](25호)
安自山, 諺文 名稱論 (26호)

梁柱東, 新發見 "訓民正音"에 對하야(36호)
辛兌鉉, 訓民正音 雜攷 "制字原理와 母音調和"(36호)

이 중『정음』의 지향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할 논의는 문시혁과 안자산의 논문이다. 문시혁의「吏讀에 對한 考察」은 창간호부터 10회에 걸쳐 연재된 것으로, 이두의 명칭, 이두의 의의, 이두의 변천, 이두와 토와의 구별, 이두와 정음의 관계, 이두에 대한 신해석, 이두에 대한 문헌 등을 설명한 후, 이두 자료를 소개한 논문이다. 저자가 이두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서 "朝鮮語 自體의 性質을 闡明하는데 參考가 되며 古文解釋에 도움이 되는 吏讀의 考察을 無視하며 敬遠하는 것은 賢明한 語學硏究者의 態度가 안이다."라고 한 것은『정음』에서 지향하는 언어연구의 기본이 역사에 대한 이해였음을 잘 보여준다. 안자산의 논문은 훈민정음 자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논의로서보다는 훈민정음의 문화사적 의의를 밝힌 논의인데,『정음』편집진이 외부인사인 안자산의 글을 특별히 수록한 것은 그의 관점이『정음』의 지향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중 "大抵 一國의 文明은 其國의 固有文明보다 外文化를 豊富히 輸入하야 節操잇게 使用함을 優하다 하는 것이라. 古來로 朝鮮을 文明國이라 함도 亦是 朝鮮의 固有文化가 잇는 것보다 中國文化를 盛히 利用함으로써라."[14]이라는 관점은 국수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선어연구와 조선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정음』의 관점과 지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학적 탐구의 관점과 지향

앞 절에서는 철자법의 원칙을 거론하는 데에서 소장문법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파울의 언어관을 언급하였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러한 사례는 조선어학연구회 연구자들이 역사주의 언어학을 조선어 연구의 방법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정음』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서구 언어이론은 소련 언어학자 마르(Marr, Nikolai Yakovlevich)의 '신언어이론'[15]

14) 안자산,「諺文과 文化 及 民族性」,『정음』24, 1938, 3면.
15) 마르크스주의 언어이론의 정립을 위해 소련 언어학자 마르가 주창한 언어 이론이다. 사회경제적

이었다. 조선어학연구회 창립 위원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신남철은『정음』2호에「언어의 성립」을 게재하는데, 이는 마르의 이론을 소개하는 글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신남철이 마르의 이론을 번역 소개하게 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7) [에스벨센]이라고 하든디 [포슬러]라고 하든디 또는 [쏘슐]이라고 하든디 다 체계적 정합을 가지고잇다 할는디 몰르나 과연 얼마나 현실사회에 제언어 현상을 역사사회적으로-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잇는디는 큰 의문이다.(신남철,「언어의 성립」,『정음』2, 1934, 35면.)

이를 보면 신남철은 언어 현상을 역사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언어 연구의 본령으로 보고 이에 맞는 언어 이론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색은『정음』에서 역사주의적 관점을 취했던 것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마르의 신언어이론에서는 언어의 계통을 근거로 언어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역사·비교 언어학의 방법론을 부정하지만, 신언어이론의 궁극적 목적 역시 언어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만『정음』에서의 모색은 결국 파울의 이론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16], 이는 파울의 언어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는 유응호의 논문이 연이어 게재된 것에서 알 수 있다.

(8) 역사주의적 관점의 논의(1)
柳應浩, 言語의 形態(14호)
柳應浩, 言語發達의 本質에 關한 槪觀[譯](15호)
柳應浩, 音韻法則에 關하야(17호)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어 교차에 의해 새로운 언어가 출현하는 과정을 언어의 단계적 발전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이론의 등장과 함께 1930년대 소련언어학계에서는 언어의 성격 및 언어학의 연구방향과 관련한 일대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을 거치며 소련언어학계를 주도하게 된 마르의 이론은 이후 전 세계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스탈린에 의해 교조주의적 언어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퇴출되었다.

16) 신무라 이즈루(新村出)의 회고(이연숙,『국어라는 사상』, 소명출판, 2006, 215면.)에 따르면 신무라 이즈루가 동경제대에서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로부터 들은 강연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이 헤르만 파울의『언어사 원리』에 의한 연습이었다고 한다. 이 언급은 파울이 일본어학계에 끼친 영향을 짐작게 하는데,『정음』에서의 모색이 파울로 귀결된 것도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유응호의 논문과 관련한 설명은 고영근[17]과 최경봉[18]의 논의에서 자세하게 다룬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언어 이론에 대한『정음』의 관점과 관련하여 재서술할 것이다.

14호에 게재한 '언어의 형태'에서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형태론(문법론)을 설명하면서 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언어를 유형화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유응호는 '첨가, 굴절, 고립, 포합' 등과 같은 언어의 유형이 변화되는 양상을 통해 언어의 유동성을 강조하는 역사주의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현대 조선어는 순수첨가어(교착어)라 할 수 있지만 중세어는 종속적 첨가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19]

15호에 게재한「言語發達의 本質에 關한 槪觀」은 2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소장문법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파울의『언어사원리』(1909)의 제1장을 번역한 것으로, 유응호의 언어학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조선어학계에 '소장문법학파'의 이론을 처음 소개하는 논문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17호에 게재한「음운법칙에 관하야」는 미완성 논문인데, 여기에서도 언어를 유동적인 실체로 인식하는 역사주의적 관점에 기반하여 음운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음운법칙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음운동화, 음운탈락 등처럼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일반음운법칙으로, 일반음운법칙이 특정 언어나 방언에 따라 특색 있게 나타나는 것을 특수음운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⑼ 文化的 蓋然性을 가진 音韻法則에는 絶對的 必然的 意味가 안이라 人類言語에 共通된 音韻變化의 可能을 表示하는 原理 즉 一般音韻法則이 잇다. 짜라서 우리는 이가튼 一般的 原理에 비추어서 個別的音韻變化의 原因을 究明하며 또는 이가튼 一般原理를 解得하야써 諸言語現象을 說明할수잇게된다. (…) 一般音韻法則이 다만 엇더한 可能性을 줌에 불과하고 必然性을 表示하디 못함에 反하야

17) 고영근, 앞의 책.
18) 최경봉,「국어학사에서 유응호의 위상과 계보」,『한국어학』54, 한국어학회, 2012, 291-324면.
19) 유응호는 언어 유형의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음조화 현상에 주목했다. 모음조화는 意義辭(실사)의 모음에 따라 形態辭(허사)의 모음이 달라지는 현상인데, 그는 모음조화 규칙의 지배로 의의사에 형태사가 영향 받는 것은 순수 첨가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特殊音韻法則은 歷史的 材料와 같히 具體性을 가지게 되며 이로써 비로소 言語現象의 歷史的 必然性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유응호, 「음운법칙에 관하야」, 『정음』 17, 1936, 3-4면.)

위의 인용은 예외 없는 음운법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초기 소장문법학파의 실증주의를 벗어나 음운법칙의 개별성과 예외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20]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주목할 것은 순경음 'ㅸ'의 변천을 예로 들면서, 모음화 변천을 일반음운법칙으로, 자음화 변천을 특수음운법칙으로 설명한 점이다. 이 논문이 각 시대 및 지역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과 관련하여 특수음운법칙의 의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론의 소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역사주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조선어의 변천 법칙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유응호의 논문은 단 세 편에 불과하지만, 역사·비교 언어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조선어의 역사와 특성을 설명한 시도는 이후 학술지로서 『정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정음』의 논문 게재 양상을 보면, 유응호의 문제의식은 고재휴의 논문으로 이어진다.

(10) 역사주의적 관점의 논의(2)
高在烋, 言語의 歷史的硏究의 意義(32호)
高在烋, 古語學的小考 用言語尾 『ᄒᆞ』에 對하야(33호)
辛兌鉉, 朝鮮語의 變遷 古語法에關한 若干의 考察(33호)

고재휴는 32호에 게재된 언어의 역사적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는 논의에서 언어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찰을 근거로 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20) 파울은 초기 소장문법학파 학자들과 달리 "음운법칙은 자연법칙과 같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언제나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특정의 역사적 현상 내에서 동일성을 확증하는 것"(김윤한, 「H. Paul의 언어 연구방법」, 『언어학』 11, 1989, 28면.)이라 했다.

(11)『言語學은 歷史的 科學』이란 말과 같이 歷史的 觀察이 안이면 片言隻字라도 眞的인 科學的 硏究 結果를 어들 수 업스며 言語의 一般的 特殊的 形態를 밝혀 一般的 理論을 構成할 수 업슴은 물론 그의 變遷 由來 根源的 事實을 밝힐 길이 업는 것이다. (…) 明密且嚴正한 歷史的 言語 硏究가 言語學의 最大 分野라는 것보다 全體라고도 하는 것이다. (고재휴,「언어의 역사적 연구의 의의」,『정음』32, 1939, 1면.)

위에서 밑줄 친 "역사적 언어 연구가 언어학의 최대 분야라는 것보다 전체"라는 언급은 언어에 대한 연구가 곧 역사적 언어 연구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재휴와 신태현이 고어에 대한 연구를 철자법에 대한 논의와 연결 짓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재휴는 33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용언어미 'ᄒᆞ' 논의를 철자법 논의와도 연결지으면서, '많다, 놓다'가 아니라 '만ᄒᆞ, 노ᄒᆞ'로 써야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 그리고 신태현은 "고어법의 체계적 연구에서 수머나온 철자이론이 안이고는 도저히 오날날의 조선어에 적합한 철자법을 낼 수는 업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어법 분석을 통해 어법에 따라 형태를 밝혀 적는 철자법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철자법 문제가 학계의 중심 주제를 벗어난 시기이지만 어법 논의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철자법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밝혔지만, 이중 신태현의 논의는 조선어학연구회의 철자법이 아닌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의 정합성을 강조한 것이란 점에서, 철자법 논의가 실천의 문제에서 비켜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이루어진 조선어연구는 자연스럽게 비교언어학과 결합하게 된다. 고재휴의「用言語尾『ᄒᆞ』에 對하야」는 어미 'ᄒᆞ'의 문제도 비교언어학적 접근을 하여 그 특성을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ᄒᆞ'를 어미로 첨가하여 용언으로 전용하는 것은 조선어의 독특한 어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언어의 문법과 공통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역사적 언어 연구가 비교언어학적 관점과 결합할 때 논의가 심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2) 비교언어학적 관점의 논의
高在燮, 世界言語學的系統과 朝鮮語의 地位(23호)
安自山, 朝鮮語의 性質(27호)
金澤庄三郎, 言語上으로본 鮮滿蒙의 關係[譯](31호)
안트완・메이예, 言語分類에 對하야[譯](32-33호)
高在烋, 比較言語研究草(34, 36호)
辛兌鉉, 縮約語와 硬音 內鮮語研究의 一試論(34호)
李源鎭, 朝鮮語와 琉球語比較資料(34호)
西村眞太郎, 國民先習[譯](36호)
高在烋, 言語上으로 본 內鮮關係(37호)
李源鎭, 支那語의 方言分類(37호)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음』에서는 내선동조론(內鮮同祖論)을 주장한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 등의 논문을 비롯해 언어의 계통 및 유형에 대한 논문을 다수 번역해 실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적극 내세우는 1940년 전후의 상황과 연관 지어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이 증가하는 맥락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40년 36호에 실린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통역관이었던 니시무라 신타로의 「國民先習」은 언어상 고대에 일본과 조선 민족이 동족이었고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계속 이어졌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논문으로, 이광수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정음』편집부에서 국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또한 「朝鮮語와 琉球語比較資料」(34호)에서 이원진이 밝힌 집필 경위[21]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음』편집부는 필자들에게 내선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청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음』이 내선동조론을 선전하는 논문을 적극적으로 게재한 것은 『한글』의 선택과 대조된다.[22] 더구나 내선관계의 밀접성을

21) 이원진은 "正音 編輯先生이 엇지 나가튼 짜위를 아랏던디 東條操氏 論『南方方言資料』란 冊을 주면서 朝鮮語와 音義類似한 語彙를 몇 개던디 기어코 쌔달라고 신신 부탁을 바닷기는하야쓰나 (…) 氏의 부탁이 자자하야 拒絶하는 것도 싹해서 몇 개를 골라서 쓰겟다."라고 집필 경위를 밝히고 있다.

22) 『한글』의 주요 필자였던 전몽수(田蒙秀)는 『每日新報』(1941.12.3.-12.5.)에 3회에 걸쳐 「言語上으로 본 內鮮關係」를 발표하였지만, 『한글』에는 이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한글』의 편집 원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939년 『한글』73호에는 일본어와 아시아 제 민족어와의 관련성을 논증한 新村出의 「언어의 비교 연구에 대하여」를 게재한 적은 있지만, 이외에 내선관계를 밝히는

밝히는 비교언어학 논문의 수준이 어휘의 유사성을 탐색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23]은 당시 비교언어학 연구의 정치적 동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유응호(14호)와 고재섭(23호)의 논문이 게재된 점, 그리고 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을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선어의 특성을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려는 문제의식을 보인 안자산(27호)의 논문[24]이 게재된 점 등을 감안하면,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논의의 확산은 조선어 연구의 전개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어 유형론과 비교언어학 연구의 의의와 방법에 대한 내용은 고재휴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에 대한 수용 동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13) 言語 硏究는 比較言語學으로 發展함에 비로소 學的 價値를 가초게 된다. 比較言語學처럼 困難과 危險性이 만흔 것은 잇디 안타. 同族語일디라도 音의 類似로써 同源語라고 一律的으로 決定지은 것은 危險性이 만흔 것이다. 우리는 借用素를 嚴密히 分別하고 同源語를 蒐集 比較하여야 할 것이다. (…) 言語를 硏究할 쌘 系譜的으로 考察하야야 할 것이요 原形의 分派語는 반드시 一定한 對應規則이 잇다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즉 音韻對應, 語義對應, 形態對應 등 對應法則이 適合되지 안는 語彙는 音形類似가 偶然性이 만타는 것을 아라야 할 것이다. (고재휴,「비교언어연구초(一)」,『정음』34, 1940, 5면.)

그런데 위의 내용은 "구리, 구슬, 기름, 구린내, 갈보, 거러지, 골치, 겨를, 고래, 쑬, 굴레, 쏙대기, 갈그(剝), 가락, 갈외(盜賊), 구지(口)" 등의 어원을 만주어, 퉁구스어, 몽골어 등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하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당시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어원 연구와 연결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논문을 게재하지는 않았다.

23) 고재휴는「言語上으로 본 內鮮關係」에서 내선관계의 공통점이 어휘비교론 이상의 발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법, 형태론, 음운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연구 고찰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논문 역시 '무지개' 등 몇 개의 어휘에 나타난 유사성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24) 안자산의 논의에서는 우랄어족이라는 계통적 특성과 다른 언어와의 교섭을 통해 형성된 특성 등이 혼재된 상태에서, 언어의 특성을 조선 문화 및 민족성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14) 어원 관련 논의
尹定夏, 語源의 一考察(18-19호)
梁柱東, 語義攷數則(27호)
梁柱東, 古語法數則(32호)
趙東卓, 語源小考(32호)
K生, 方言푸리(32호)
高在烋, 「담사리」에 對하야(35호)
辛兌鉉, 古語集解(35호)

1930년대에 어원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관심이 컸던 것과 관련해, 조항범은 이러한 경향이 당시에 도입되어 있던 서구 역사주의 언어학의 덕분이며, 그에 힘입어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이 국어 어원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했다.[25]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홍기문과 고재휴가 선구적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정음』에는 1937년부터 비교언어학과 관련지어 어원 및 고어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특히 'K生'처럼 익명으로 발표한 글인 「方言푸리」에서도 어원 분석을 통해 방언의 해설을 시도한 것은 어원 연구의 저변이 넓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어학계는 역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조선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의 범위는 대체로 음운과 어휘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어의 전모를 학술적으로 밝히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1939년에 『정음』을 통해 발표된 고재휴와 이익선의 논문은 역사언어학적 방법론의 적용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15) 역사주의 언어학 논의의 확장
高在烋, 持格促音字考(28호)
高在烋, 原始時代語音과 「ㄹ」音(29호)
李益善, 言語의 一面 語義學에 對한 小考(30호)
李基煥, 言語硏究의 對象과 領域(33호)
李源鎭, 音韻變化의 原因[譯](36호)

25) 조항범, 『국어 어원론』(개정판), 충북대 출판부, 2014, 30-31면.

고재휴의 논문은 어린아이의 발음 발달에 대한 관찰을 적용해 어음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여기에는 그 영향 관계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에른스트 헤켈(E. H. Haeckel, 1834-1919)의 가설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익선의 논의는 역사적 연구의 영역을 의미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어의학, 즉 어휘의미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범위, 의의 등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16) 語義學은 낱낱 單語의 意義와 原由를 檢證하고 밝히디 안코 意義의 檢證은 辭典, 原由의 硏究는 語源學에 各各 依賴하고 多數한 言語의 意義의 微妙한 差異를 分解하고 檢討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目的한 바는 이에만 긋치디 안코 그 이상 同時에 또는 哲學的인 것이다. 엇더한 原義로브터 다른 意義로 變轉하얏는가? 觀念의 엇더한 聯想으로 因하야 새 語義가 생겻는가? 어씨하야서 意義가 慣用上에서 淘汰가 되얏는가? 어씨하야 社會人은 原義와 全혀 달른 意義로 使用하는가? 이러한 變改이 생기는 原理는 무엇인가 등을 硏究對象으로 하는 것이 語義學의 所攝에 屬한 것이다. (…) 語義의 法則은 思想을 表現하는 데 不絶히 움즈기는 人類精神에 內在하는 一般的 原理를 發見하는 것 샏이다. 그 原理는 不變이 안임으로 語義의 法則은 不變性을 씌운 絶對的이 안이고 音韻法則과 가튼 整然하고 一律的인 法則을 發見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익선,「언어의 일면 어의학에 대한 소고」,『정음』30, 1939, 9면.)

음운법칙과 의미법칙의 차이를 밝히면서 의미론 연구의 의의를 밝히는 대목은 당시 언어학의 연구 방향에 대한 대체적인 틀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밑줄 친 부분에서 어의학 연구의 의의가 정신활동의 일반적 경향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이후 어의학이 '한 언어의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어의 분화와 진화를 사적으로 밝히는 데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과학'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설명은 마르크스주의 언어학의 대표적 학설인 '신언어이론'이 역사적 의미론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배경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26] 그렇다면 이익선의 논의는 당시

26) '신언어이론'에서는 언어 발전의 법칙을 세우는 데 있어 의미론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음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비교언어학과의 차이점이다. "만일에 언어사를 역사적 어음론에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론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논의로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정음』에 실린 논문의 경향을 검토하면서, 『정음』의 관점과 지향이 역사·비교 언어학과 긴밀히 관련된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과 지향은 소쉬르의 언어 이론을 소개하는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36호에는 이원진 번역의 「음운변화의 원인」이 실리는데 이는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당시 번역서는 고바야시 히데오의 『言語學原論』)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소쉬르의 언어학을 소개하는 첫 번역이 음운변화의 원인이었음은 『정음』의 지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 言語學의 科學的 基礎를 完成식힌 저 有名한 ①소쓸「Ferdinand de Saussure」의 言語理論을 理解티 못한 者는 言語를 論할 資格이 없다는 것은 斯學界에서 公認하는 바이다. 氏著「言語學原論」의 原書나 譯本(小林英夫 譯)이나를 購讀한 이는 比較的 小數에 지나디 못할 것임으로 讀者諸氏를 爲하야「音韻變化의 原因」이란 一文을 小林英夫 譯本에서 再譯發表하려는 것이다. ②332頁중 8頁에 不過한 斷片일디라도 原著者의 全學說의 一部를 能히 窺知할 수 잇슬 것이다. (이원진,「음운변화의 원인」,『정음』36, 1940, 21면.)

위의 인용문은 「음운변화의 원인」의 역자 언(譯者言)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소쉬르의 언어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언어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한 (17①)은 1940년 당시 조선어학계가 이미 구조주의의 영향권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음운변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소쉬르의 언어이론의 한 측면을 알 수 있다고 한 (17②)를 통해서는 당시에도 조선어학계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역사적 연구에 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는 언어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의거시키지 않고 역사적 의미론을 그 기초로 삼는다면, 모든 언어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법칙성이 관찰되며, 본질적, 현실적 부문 즉 유의미적 부분의 동일성이 발견케 된다. 발전의 주요 노선은 여러 계통에 소속되는 각양각종의 언어에, 동일하게 되어 있는 까닭이다."(ИИ쭈게트만, 김수경 역,「H. Я 마르와 소베트 언어학」,『조선어연구』1-6, 조선어문연구회, 1949, 98면.)라는 언급을 통해 역사적 의미론이 '신언어이론'의 기본 방법론이 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것으로, 당시 파울의 언어이론이『정음』을 통해 공유된 상황에서 소쉬르의 언어이론은 언어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단은 (1)에서 살펴봤던 이희승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 대개 科學的 硏究라는 것은 個個의 事實을 調査 吟味하는 것으로부터 全體에 對한 完全한 體系的 知識에 到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하자면 위선 個個의 事實을 比較하여 그 사이에 共通되는 點과 差異되는 點을 發見하는 일이 가장 重要하다. 言語의 硏究도 이와 같은 方式으로 나아가서 그 最高 理論이라든지 根本 原理를 세우고 그 原理를 基本으로 하여 綜合的으로 全體의 體系를 組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희승,「조선 어학의 방법론 서설」,『한글』71, 1939, 161면.)

그런데 '음운변화의 원인'이라는 부분을 번역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반론적 추론보다는 그 서술 내용과 구체적으로 관련지을 필요가 있다. '음운변화의 원인'을 다룬 절에서 소쉬르는 그간 음운변화의 요인으로 '인종의 선천성', '기후의 영향', '최소 노력 법칙의 영향', '유년기 음성교육의 영향', '국민의 일반적 상태', '선주(先住) 민족의 언어 기층', '유행의 변화' 등을 꼽아왔음을 거론하면서, 어떠한 가설로도 그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부분을 번역해『정음』에 게재한 것은 언어 연구자들에게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의 차이', '언어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음운변화와 문법변화의 차이' 등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역사주의적 언어 연구의 흐름 속에서 구조주의 방법론을 적용하려고 하면서 언어 연구의 대상과 영역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李基煥의「言語硏究의 對象과 領域」(33호)인데, 이 논문은 언어 연구의 대상과 영역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는 소쉬르의『일반언어학강의』를 연상시킨다.

여기에서는 언어 연구의 영역을 언어철학, 언어심리학, 언어생리학, 문헌학,

언어학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언어학을 공시적으로는 음성론, 의미론, 형태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통시적으로는 계통론, 어원론, 언어사로 하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1)에서 살핀 이희승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말과 말의 쓴, 同一語의 語感, 言語와 文字, 둘바팀 問題" 등으로 언어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던 「語學硏究의 意義」(盧壽連, 12호)와 비교하면, 1936년 이후 언어연구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인식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결국 (17①)의 상황, 즉 "소쓸의 言語理論을 理解티 못한 者는 言語를 論할 資格이 없"게 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외에 『정음』에서 구조주의적 문제의식을 보이는 논의로서 언급할 만한 것은 28호에 실린 고재휴의 「持格促音字考」이다. 이 논의에서는 분포 양상에 대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15세기 국어에서 'ㄱ, ㄷ, ㅂ, ㅅ, ㅿ, ㆆ' 여섯 자로 실현되는 지격촉음자(사이시옷)들의 분포를 일람표식으로 분류 배열한 것은 분포 양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언어 현상에 대한 체계적 설명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18)의 밑줄 친 이희승의 언급과 관련짓는다면 이는 "개개의 사실을 조사 음미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다만 사이시옷의 분포 양상을 의미와 통사 차원으로 확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분포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해 언어 현상의 원리를 체계화한 논의는 김수경의 「용비어천가 삽입자음고」(『진단학보』 15, 1947, 114-150면)에서야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연구는 구조주의적 문제의식을 보이되 이를 연구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언어정책의 관점과 지향

앞 장에서는 마르의 언어 이론을 소개한 신남철의 번역을 언급하면서, 신남철이 언어 현상을 역사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언어 연구의 본령으로 보고 이에 맞는 언어 이론을 모색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때 언어 현상을

역사사회적으로 이해한다는 관점은『정음』을 통해 발표된 언어운동 관련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언어 현상에 대한 역사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운동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당시 어문민족주의에 기반한 민족어운동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정식(印貞植)[27]의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순수한 조선어 보존 요구가 있는 상황, 방언을 수집하고 정제하여 통일된 문화어로서 조선어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 사전편찬과 문법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을 언급하면서, 복고주의적 언어운동(한자어의 개조, 외래어 배제, 고유어 부활)의 위험성과 반동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어의 통일은 가장 평이하고 통속적인 민중적 조선어를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운동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역사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이 一切의 前資本主義的 封建的, 奴隸的, 共同體的 等 生産樣式을 克服하고 支配하게 됨에 따라 舊來의 地方的 自足經濟, 封建的 地方權力 等 封建的이며 地方的이며 分散的인 一切의 經濟關係가 한 個의 統一된 全國的인 經濟關係에로 解消 統一되는 過程에 이서만 비로소 從來의 方言이 漸次로 解消되고 全國的인 統一語가 形成되게 되는 것이다. (인정식,「복고주의에 의거하는 조선어연구운동의 반동성」,『정음』21, 1937, 22면.)

위의 내용은 민중적 조선어로의 통일이 언어운동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임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정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어라는 것과 통일된 목적의식을 가진 민족이란 것은 결국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조선이 반봉건적인 자본주의의 주변이라는 상황 인식과 결합하여, 조선어가 기형화, 불구화된 사회적 이유가 조선경제의 기형화에 있다는 인식으로 발전한다. 인정식은 이처럼 조선어와 조선경제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선어통일을 어렵게 하는 객관적 원인을 조선경제의 기형화에서 찾고 이 객관적 원인을 단순한

27) 인정식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31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인데, 위의 글은 그가 1938년 사상전향을 하기 전 발표한 글인 만큼 마르크스주의자로서의 관점이 뚜렷한 글이다.

언어연구운동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신남철이 번역 소개하고자 했던 마르의 언어변화 이론, 즉 하부구조인 생산토대의 변화에 따라 언어는 교차의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이론과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19)는 표준어 제정과 관련한 홍기문의 논의를 마르 이론의 관점에서 심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기문은 현실의 반영물이 언어라면 언어를 인위적으로 통일하려는 표준어 제정은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관점을 취한다.

(20) 우리는 各 方言의 密接한 接觸과 互相의 混化로써 各 方言의 融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는 各 方言의 融合과 가티 各 階級語의 融合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一言으로 要約하면 言語의 統一은 決코 오늘의 일이 아니요 來日의 일이며 그와 같이 標準語의 制定도 時急한 닐이 아니요 좀 더 時間을 要하는 닐이다. 또 設使 標準語의 制定이 곧 必要하다고 하더라도 鷄卵主義者(중산계급의 중심, 필자주) 乃至 서울至上主義者의 任務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斷然 허락할 수 업는 닐이다. (홍기문, 「표준어 제정에 대하야」, 『조선일보』 1935.1.22.-23.)

홍기문은 지역어와 계급어 간의 자연스러운 융합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인위적 어문정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방언과 계급어의 융합을 내일의 일'로 보는 홍기문의 관점은 "봉건적이며 지방적이며 분산적인 일체의 경제관계가 한 개의 통일된 전국적인 경제관계에로 해소 통일되는 과정에 이서만 비로소 종래의 방언이 점차로 해소되고 전국적인 통일어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라는 (19)의 관점과 상통한다.

그런데 순수주의와 복고주의적 언어관에 따라 진행되는 언어운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논문이 『정음』에 게재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조선어학연구회의 언어정책 관점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어학연구회의 언어정책 관점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정음』 편집진의 기획으로 게재된 외래어 관련 논문과 자료이다.

(21) 외래어 논의
外來語・世界語(譯)(3호)
K생(譯), 新村出 氏의 外來語 是非(5호)
權寧仲, 日本語變遷論(12호)
權寧仲, 朝鮮語가 가진 外來語(13호, 16호)
李春景, 朝鮮語化된 外來語(21호)

13호와 16호에 실린「朝鮮語가 가진 外來語」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논문 일부를 번역한 것으로 '한어, 여진어, 만주어, 몽고어, 노어, 일본어' 등으로 나누어 그 어원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어원론의 성격을 띤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외래어의 역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朝鮮語化된 外來語」(21호)의 논리적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朝鮮語化된 外來語」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어가 수입되어 그 민족의 관습어(고유어)가 되는 과정의 말'로 정의하면서, 'lamp'가 '람포, 남포'로 쓰이는 예와 한자어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완전히 조선어화한 말인 '學校, 飛行機, 名詞' 등을 '배곧, 날트리, 임씨' 등으로 바꾸는 경향을 비판한다. 이는 결국 관습화된 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어원을 따져 고치려 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데, 이러한 관점은 12호에 권녕중이 번역하여 게재한「日本語變遷論」[28]에서의 태도, 즉 언어는 시대 요구에 따라 변천하므로 기존 용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표현하기 위해 외국어 기원의 신조어가 속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태도와 상통한다.

이처럼『정음』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볼 때, 여기에서 표명하는 일관된 외래어관은『정음』편집진의 외래어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34년『정음』3호와 5호에 외래어 관련 논문을 번역하여 게재한 것은 전적으로 편집진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조선어학연구회의 언어관을 가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여기에 언급된 외래어관이 마르크스주의 언어관 또는 파울의 언어관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8) 판결문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재판소구성법에서 요구하는 일본어는 고유의 일본어로 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일본어를 판결문에 사용한 것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는『法律時報』의 기사 내용을 번역한 글.

3호에 실린 「外來語・世界語」는 아라카와 소베에(荒川惣兵衛)의 논문을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세계어 건설 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29] 외래어의 수용을 통해 세계어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민족인 것과 세계 공통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 마르크스주의 언어관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22) 以上 論述한 바 國際語는 하나도 適切妥當함을 찾디 못하야쓰나 여긔서 나는 外來語에 依한 世界語를 提唱한다. 前述과 如히 外來語는 저거도 二個國 以上의 共通語이오 더욱 모던外來語 中에는 世界 共通의 말이 만흐며 言語界의 코스모포리탄이다. 이 事實은 外來語 中에 國際語의 열쇠가 이슴을 보힘이 아니고 무엇일 것이냐. 다만 그것이 現在로는 國語 中에 一半에 不過할디나 그러나 外來語를 各國이 擴充한다면 全的으로 眞實한 國際語가 어더딜 것이다. (아라카와 소베에, 「외래어・세계어」, 『정음』 3, 1934, 19면.)

그런데 이 논문의 역자주에서는 "우리가 只今 當面한 言語의 問題 卽 混亂한 災禍 中에서 길을 찾디 못하는 朝鮮語를 生覺할 時에 같이 共鳴되는 点과 아울러 가르침을 받게 하는 点 等으로 여긔에 拙譯을 실리우는 바이다."라고 이 논문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를 보면 아라카와 소베에의 논문을 번역하여 게재한 『정음』 편집진의 의도는 국제어의 건설이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당시 외래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논문의 다음 대목이 당시의 요구에 부합하는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23) 가장 頑强한 國語淨化를 主張하고 外來語의 排斥에 努力하는 國語는 言語界에 延長하면 文化에 가장 뒤뎌서 劣敗하고 말 것이다. 그러고 아무리 실타하야도

29) 『정음』에서 에스페란토어를 다룬 것이 19호에 실린 CH의 「에스페란토의 略史」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세계어에 대한 『정음』 편집진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이에 대한 편집자 주, 즉 "우리 朝鮮도 統一된 朝鮮語와 배호기 쉽고 文法이 整然한 言文을 渴望하고 있는 今日에 (…) 鴻毛의 裨益이 되야디리라는 信念下에 貴重한 紙面을 앗기디 안는 바이다."를 보면, 이 번역의 게재 의도가 세계어 건설의 주장보다는 어문정리 사업의 방향 모색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뒤뎌가면서 世界語에 追從티 아니티 못할 것이다. 空然히 偏狹한 世界에 처박혀 이슬딘대 널븐 世界에 몸을 던짐이 生存競爭 裡에 이서서 適者生存의 要諦가 아닐가 한다. 小我를 바리고 大我에 浸入하는 것이다. 이것은 死가 안이오 生인 까닭이다.(아라카와 소베에,「외래어・세계어」,『정음』3, 1934, 22면.)

위의 언급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대응해 보면, "완강한 국어정화를 주장하고 외래어의 배척에 노력하는 국어"는 조선어학회가 건설하고자 하는 조선어일 것이다. 그렇다면『정음』편집진이 조선어학계에 제안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결국 위의 밑줄 친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순수주의에 따른 외래어관으로는 조선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무라 이즈루(新村出)의 논문을 번역한 5호의「新村出 氏의 外來語 是非」도 외래어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23)에서의 관점과 상통한다.

> (24) 國語의 威嚴이나 尊重과는 달른 感念이 言語의 傳達力과 當面의 感情意識이라는 直接的 效果論과 交叉되는 點이다.「生存하는 言語에는 決코 無用한 剩餘의 것은 업슬 것이다」라고 말한 파울의 名言은 外來語의 境遇에도 그 感念의 合致를 차즐 수 이슴이라고 하겟다."(K생,「新村出 씨의 외래어 시비」,『정음』5, 1934, 50면.)

위의 내용은 "西洋外來語의 移入은 向後 一張一弛의 機會는 이슬 것이로되 더욱 增加할 것이다. 그 中에 極稀하게 和譯 又는 漢譯한 形態로 殘存한 境遇도 이슬 것이다. 그 譯語라는 것이 그리 어느 째든디 歡迎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46면)라는 언급과 연결되어 있다. 즉, 서구 외래어의 번역어를 언제나 환영할 것이 아니라는 신무라 이즈루의 인식은 외래어가 감정 의식을 전달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무라 이즈루의 논문에서 특기할 점은 외래어가 분명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파울의 언급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번역 논문의 내용이지만, 언어 연구의 관점과 언어 운동의 관점을 일치시키고자 했던『정음』편집진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번역 논문 이외에 주목할 것은『정음』2호부터 19호까지 7회에 걸쳐「外來語

解釋」이란 난을 두고 서구 외래어를 소개한 사실이다. 「외래어 해석」 연재의 첫 회에 나온 편집자의 말은 외래어 문제에 대한 『정음』 편집진의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5) 最近 文化의 潮流가 世界的으로 相通하게 됨을 따라 外來語의 流行이 만흐며 또 다톼서 新聞 雜誌 其他 新刊書 中에서 쓰혀딤은 깃븐 消息이라고 까지는 말하기 어려우나 늘 뒤뎌있는 우리로서는 쪼차감의 努力을 게을니 못할 것임으로 이 欄을 特設하야 讀者의 參考에 供하고자 하나이다.(편집부, 「외래어 해석」, 『정음』 2, 1934, 58면.)

'외래어가 유행하는 것이 기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유행을 쫓아가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는 인식은 외래어의 존재가 잉여적이거나 우리말을 훼손하는 장애요소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정음』을 통해 표출된 외래어관은 방언의 위상을 인정하는 언어관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6) 방언의 위상 관련 논의
高在烋, 標準語와 方言(22호)
金億, 言語와 感情(27호)[30]
金億, 사투리 擁護論(28호)[31]

고재휴의 글은 "지방말은 합리적 鄭重한 말이라도 방언이라는 의미에서 버리고 아라드를 수 업는 사투리라도 경성말이란 의미에서 표준어로 세운다는 것은 언어학자로서 심심히 주의할 점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말과 서울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표준어를 제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음』을 통해 표출된 외래어관과 상통하는 것은 김억의 글이다. 김억의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언어 표현은 감정 의식을 전달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방언, 외래어, 신어, 유행어 등의 존재

30) 『매일신보』(1938.10.6.)에 발표한 글을 재수록한 것이다.
31) 『매일신보』(1938.9.24.)에 발표한 글을 재수록한 것이다.

의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27) 本來가 言語의 生命은 感情 고대로의 如實한 表現에 잇서 고 말을 쓰디 아니하고는 그러한 切實한 感을 나힐 수가 업는 것이라 (…) 더구나 言語란 언제나 가튼 것이 안이오 쓴디 아니하고 外來語니 新語니 流行語니 하면서 變化하야 新舊의 別이 생기고 發音이 나날이 달라디는 판이니 어느 것을 붓들고서 이것은 標準語이다 하면서 그 變티 안흘 것을 保證할 수가 잇습닛가. (김억, 「사투리 옹호론」,『정음』28, 1938, 32면.)

지금까지 살펴본 방언과 외래어에 대한 인식은 앞서 살펴본 이춘경의 「朝鮮語化된 外來語(21호)」에서와 같이 한자어의 존재 의미를 인정하는 언어관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한자어에 대한 관점은 한자 및 국어순화에 대한 관점과 밀접히 관련된다.

(28) 한자 문제 관련 논의
服部嘉香, 國字問題의 可能性과 不可能性[譯](29호)
漢字使用八十萬語中에 常用은 三千字(31호)
二笑生, 朝鮮語와 漢字(36호)

29호에 실린 핫토리 요시카(服部嘉香)의 글은 일본에서 한자 문제(한자폐지론)와 로마자 문제(로마자 채용론) 등이 제기되었던 맥락을 살펴본 논문이다. "朝鮮語의 綴字法과 아울러 朝鮮語 全體가 極度의 混亂에 싸뎌 잇는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事實이다. 여긔에 譯載한『國字改變의 可能性과 不可能性』이란 一文은 國語運動의 沿革에 關한 硏究이나 語學上으로 봐 朝鮮語의 統一에 잇서서도 만흔 暗示를 주는 됴흔 文獻이라 생각하야 敢히 譯載하는 바이니 널리 參考하야 주기 바란다."는 편집자(번역자)의 말은 이 논문에서 보이는 정책적 관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자폐지와 로마자 채용 그리고 국어정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논문의 관점은『정음』편집진의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1호에 실린 글은 한자제한론의 의의를 설명한 것으로, 한자제한의 효과에

대한 일본 학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에 부기된 편집자 주에서 "漢字 때문에 國文이 매우 混雜難解해 디는 데 漢字制限論은 이런 意味에서 매우 興味있는 課題"라고 밝힌 점을 볼 때, 조선어학연구회가 '한자 제한'을 한자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6호에 실린 글은 한자를 도외시하고 서구 문화에 휩쓸려 서구 외래어를 남용하는 풍토를 비판하는 글로 한자폐지론뿐만 아니라 한자제한론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글은 한 투고자의 짧은 글이지만, 외래어 및 한자와 관련해 『정음』에 게재된 글들과 그 관점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歐米的인 時代는 지내고 지금부터는 亞細亞的인 것을 提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자론을 펼치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런 점에서 이 글이 『정음』에 게재된 것은 일제가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근대화론을 폐기하고 대동아공영권을 표방했던 1940년의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정음』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면서, 『정음』에서의 조선어 연구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지향하였는지 그리고 『정음』을 통해 이룬 성과가 당시 조선어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정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국어학사의 공백을 메우고, 『정음』 발간기(1934-1941)에 이루어진 조선어 연구의 지형을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실천적 언어 연구'에서 '과학적 언어 연구'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정음』의 논문 게재 경향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주류적 경향이 역사·비교 언어학 논문으로 바뀌는 변화가 필진의 교체와 연동되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로 철자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보였던 『한글』과 『정음』 간 진영 경계가 희미해졌음을 밝혔다.

3장에서는『정음』의 논문을 '철자법 관련 논의', '언어이론 관련 논의', '언어정책 관련 논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정음』에서 이루어진 언어 연구의 관점과 지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정음』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역사적 접근을 통해 언어 문제 및 언어 현상에 접근하는 것임을 밝혔다.

3장 1절에서는 철자법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서,『정음』의 의의를 고어 및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 성과와 연결 지어 철자법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찾았다. 3장 2절에서는 언어 이론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서,『정음』이 일관되게 역사주의 접근법을 취하면서, 조선어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언어 방법론으로 역사·비교 언어학을 수용하였다는 점에 밝히는 한편, 언어 현상의 체계적 규명을 위해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을 수용하고자 하였음을 밝혔다. 3장 3절에서는 언어정책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서, 언어 발전 법칙과 언어정책을 연결 지은『정음』의 관점이 마르크스주의 언어학과 역사주의 언어학에 기댄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정음』의 의의로 어문민족주의적 관점을 탈피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는 한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의 논의가 내선일체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참고문헌

고영근, 『한국의 언어연구』, 역락, 2001.
김민수, 『신국어학사』(전정판), 일조각, 1980.
김방한, 『역사·비교 언어학』, 민음사, 1988.
김병문,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이라는 난점—1930년대 홍기문의 언어 연구—」, 『대동문화연구』9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5, 459-492면.
_____, 『〈한글 마춤법 통일안〉 성립사를 통해 본 근대의 언어사상사』, 뿌리와 이파리, 2022.
김윤한, 「H. Paul의 언어 연구방법」, 『언어학』 11, 한국언어학회, 1989, 23-42면.
시정곤, 『훈민정음을 사랑한 변호사 박승빈』, 박이정, 2015.
이연숙, 고영진·임경화 역, 『국어라는 사상—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 2006.
이희승, 「조선 어학의 방법론 서설」, 『한글』 71, 한글학회, 1939, 153-161면.
장세경, 「1930년대의 국어 연구—〈한글〉과 〈정음〉의 대비 연구—」, 『한국학논집』 21·22,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7-33면.
조항범, 『국어 어원론』(개정판), 충북대 출판부, 2014.
쭈게트만, 김수경 역, 「H. Я 마르와 소베트 언어학」, 『조선어연구』 1-6, 조선어문연구회, 1949, 98면.
최경봉, 「일제강점기 조선어 연구의 지향」,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2008, 127-148면.
_____, 「국어학사에서 유응호의 위상과 계보」, 『한국어학』 54, 한국어학회, 2012, 291-324면.
_____,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2016.
_____, 「박승빈 문법의 계보와 국어학사적 위상」, 『한국어학』 89, 한국어학회, 2020, 93-122면.
페르디낭 드 소쉬르, 최승언 역,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2006.
허재영, 「일제강점기 우리말 연구의 경향과 의미—잡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3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8, 289-310면.
_____, 「안서 김억의 언어관과 한글 문법론」, 『인문과학연구』 35,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207-226면.

【Abstract】

The Topograph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through the Journal of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Association, *Jeongeum* (1934-1941)

Choi, Kyeong-Bong*

This paper examines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Linguistic Association, *Jeongeum* (1934-1941), to explain how the Korean linguistic community set goals for Korean language research, what research methods they pursued, and what they achieved. In doing so, this discussion can be said to fill a gap i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studies, which has been done without Jeong-eum,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a balanced look at the topograph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during the period of *Jeongeum*'s publication.

In Chapter 2, I examined the changing trends in the publication of articles in *Jeongeum* in the context of the transition from 'practical linguistic research' to 'scientific linguistic research'. And it pointed out that the shift in the mainstream towards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was accompanied by a change in authorship, and showed that this change blurred the lines between the *Hangeul* and *Jeongeum* camps, which had been polarized over orthography.

In Chapter 3, I examined the articles in *Jeongeum* by dividing them into 'spelling-related discussions', 'linguistic theory-related discussions', and 'language policy-related discussions', and explored the perspectives and orientations of language research that they reveal. In doing so, this paper has shown that the aim of *Jeongeum* is to solve and explain linguistic problems and linguistic phenomena through a historical approach.

Keywords: structural linguistics,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Marxist linguistics,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Jeongeum,* Korean language research association, Korean linguistics association, *Hangeul.*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0.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Wonkwang Univ.